



‘반바지 패션’ 염태영 시장과 조명자 의장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 로비에서 열린 ‘즐거운 반바지 패션쇼’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반바지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박원순, 중남미 도시재생·교통 살핀다

7박10일간 멕시코 등 방문

박원순 서울시장 ‘도시재생’과 ‘교통’을 키워드로 중남미 순방길에 오른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8~17일 7박 10일 일정으로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와 콜롬비아의 강소 혁신도시 메데진, 수도 보고타 등 3개 도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중남미 지역 공식방문은 2012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방문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순방에서 박 시장은 도시재생과 교통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사회통합에 방점을 둔 도시재생과 교통 혁신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정책현장을 방문하고 서울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박 시장은 세계 최초로 공중 케이블카를 대중교통 시설로 설치해 범주의 온상이었던 산동네 빈민촌을 도시재생의 아이콘으로 탈바꿈시킨 콜롬비아 메데진의 산토도밍고 지역을 방문한다. 메데진은 산토도밍고 지역 도시재생



박원순 서울시장. /손진영 기자

로 2016년 도시행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리관유 세계도시상’을 받았다.

박 시장은 메데진 고산지역의 에스컬레이터 대중교통 현장, 케이블카와 간선버스 간 무료환승 시스템이 구축된 보고타의 ‘트랜스미케이블’을 시찰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차 없는 거리’이자 세계적인 보행친화 모범사례로 알려진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클로비아’ 현장을 찾아 사람 중심 보행친화도시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김현정 기자

### “좀비·처녀귀신과 서울시티투어버스 타요”

서울시, 내달까지 여름맞이 이벤트

서울시는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름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7~8월 ‘제2회 서울시티투어버스 사진 공모전’을 연다. 광화문, 강남역,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출발하는 서울시티투어버스 탑승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사진은 시티투어버스 운영업체 홈페이지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모전에 출품된 우수작을 대상으로 12월 특별한 사진 전시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시티투어버스 매표소 앞에서는 7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일 오후 6시~8시 다채로운 거리 공연이 펼쳐진다. DDP 매표소는 7월 15일~8월 31일 2000원 할인된 금액으로 승차권을 판매한다. 좀비, 처녀귀신과 함께하는 ‘호러나이트투어’ 버스는 7월 26일~9월 22일 광화문 매표소 앞에서 출발한다. /김현정 기자

### 오늘부터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공모

서울시는 9일부터 8월 26일까지 ‘서울의 발견: 함께 누리는 도시’ 온라인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이 즐겨 찾는 공공 공간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소개하는 참여형 공모전이다.

참가 희망자는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공식 페이스북과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작품 접수 기간은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출품작은 공모전 온라인 갤러리에 전

시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후보자 10명을 선정해 8월 14~25일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 투표를 진행한다. 당선작은 8월 26일 발표한다.

서울시장상, 서울디자인재단상, 은상, 동상 등 20명에게 총 1000만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을 수여한다. 공모전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 공무직 경력 산정 과정에서 민간경력 불인정은 ‘차별’

시민인권침해구제위 “합리적 이유 발견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차별적 처우 해당”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공무직 경력 산정 과정에서 민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구제위원회는 8일 “호봉 산정과 관련해 공무직의 민간 사업장 근무 경력을 관공서, 공공기관 근무 경력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 소속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건을 독

립적으로 조사해 시정 권고를 하는 합의제 의결기구다.

구제위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시장과 공무직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장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시는 관공서 등에서의 근무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 호봉에 적용하기로 했지만 민간사업장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구제위는 “서울시가 공무직 호봉을 산정하면서 관공서 등에서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반면 민간사업장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발

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제위는 “이런 차별행위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인권위에 경력 자료를 제출한 공무직 944명 중 민간 경력이 있는 공무직은 262명이었다. 이 중 민간 경력만 있는 경우는 74명이었다.

전성희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단체협약 시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 사이에 임금,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더운 여름, 집 근처 나무그늘 길 걸어요”

서울시, 여름 녹음길 220선

공원 80개소, 가로 107개소 등 ‘서울 산과공원’ 홈페이지 공개

서울시는 8일 싱그러운 나무그늘이 가득한 ‘서울 여름 녹음길 220선’을 발표했다.

서울에 있는 공원, 가로변, 하천변, 아파트 사잇길 등 잎이 무성한 나무를 즐길 수 있는 서울 여름 녹음길은 총 220개다. 길이는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를 웃도는 225km에 달한다.

장소별로는 ▲공원 80개소(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서울숲 등) ▲가로 107개소(삼청로, 단산로 노원로20길, 위례성대로 등) ▲하천변 21



경의선 숲길. /서울시

개소(한강, 중랑천, 안양천, 양재천 등) ▲녹지대 11개소(원효녹지대, 동남로 녹지대 등) ▲기타(향동철길) 1개소이다.

시는 220곳의 녹음길을 테마에 따라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녹음길’,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녹음길’, ‘물이 있어

시원한 녹음길’, ‘특색 있는 나무가 있는 녹음길’로 분류했다.

서울 여름 녹음길은 ‘서울 산과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여름 녹음길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7월 12일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코너에 안내할 예정이다.

최윤중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도심에서도 숲 속에서처럼 짙은 녹음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서울 여름 녹음길 220선을 선정하게 됐다”며 “사무실이나 집에서 가까운 녹음길을 직장 동료, 가족과 함께 거닐어 보는 것도 무더운 여름을 상쾌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12일 ‘DMZ, 세계유산 등재’ 포럼

경기도는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강당에서 ‘지역 주민이 바라보는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주제로 DMZ 세계유산 등재기반 구축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목적은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앞서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것으로 문화재청 경기도 강원도, 파주시 연천군 관계자와 세계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전문가, 민통선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은진 국립생태원 경영기획실장의 ‘비무장지대(DMZ)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보존과 활용’ 기조 강연 이후 파주시와 연천군 주민대표가 ‘접경지역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한 비무장지대(DMZ)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생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DMZ 내에 있는 파주시 구 장단면사무소 모습. /경기도

사례발표자는 파주시 접경지역에서는 ▲김동구 대성동 주민대표 ▲이완배 통일촌 대표 ▲김경숙 해마루촌 주민대표 ▲공지에 장단콩 초콜렛 생산업체 운영자가, 연천군 대표로는 ▲김경도 횡산리 주민대표(한탄강지킴이 운동본부 이사) ▲이광길 삼곡리 주민대표(삼곡리 두루미 그린빌리지 대표) ▲박영관 나뭇배마루 주민대표 ▲박종근 연천 비무장지대(DMZ) 보존회 회원이 참가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서울시 공공도서관 5곳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서울시는 공공도서관 5곳을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센터’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개 도서관은 ▲강남구 ‘도곡문화정보도서관’ ▲금천구 ‘구립가산도서관’ ▲동작구 ‘사당솔밭도서관’ ▲성북구 ‘성북정보도서관’ ▲송파구 ‘송파글마루도서관’이다.

시는 올해 5개 자치구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각 센터에는 사업비로 27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5개 자치구와 각 도서관은 지역주민, 취약계층 당사자, 전문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체는 지역사회 조사 분석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고 핵심 서비스 대상을 선정한다. 이용환경 개선, 특화자료 확충 등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 /김현정 기자